



「울지마톤즈」의 구수환 감독이 당신께 드리는
이태석 신부의 마지막 선물

울지마톤즈, 그후... 선물

구수환_KBS PD 지음

값 13,000원 / 264 쪽 / 비아북
2011년 11월 15일 출간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선물이 하나가득인데 이렇게 또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닮고 싶습니다. - 김미화(방송인)
이 책은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 유홍식(주교, 천주교 대전교구장)
또 울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되고 맙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 이금희(방송인)

인터넷 서점 예스 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에서 예약판매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판매 기간 중에는 영화 DVD(60분 축약), 추가 적립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울지마톤즈」이태석 신부의 마지막 선물

우리 시대에 이태석 신부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감동을 넘어 우리의 삶에 그를 되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울지마톤즈」의 감독 구수환 PD는 영화 상영 이후 수많은 곳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그곳에서 구수환 PD는 한 신부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았다. 학생과 직장인, 진보와 보수, 군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했다. 이태석 신부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지도를 남기지 않았다. 가고 싶지만 가야할 길을 몰라 우리는 목적지만 받아들이고 헤매었다. 구수환 PD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바뀐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강연에서 만나 본 사람들을 통해, 그 지도를 완성했다. 구수환 PD는 이태석 신부의 감동적인 삶에서 좌표 잃은 청년, 허울과 위선의 리더, 그리고 갈등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치유할 메시지를 찾아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울지마톤즈」의 감독 구수환 PD가 펼치는 영화보다 진한 감동

『울지마톤즈, 그 후... 선물』은 「울지마톤즈」의 감독 무삭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적으로 시작된 구수환 PD와 이태석 신부의 인연,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아프리카 톤즈로 가기 위

한 고달픈 여정, 톤즈의 참혹한 실상, 톤즈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견하는 이태석 신부의 유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특히 톤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긴박함과 톤즈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태석을 만났던 사람들,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 사람들,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은 씌어졌다.

냉철한 저널리스트 구수환 PD, 감동을 이야기하다

매캐한 화약 냄새, 자욱한 포연,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구수환 PD는 마이크를 잡았다. 코흘리개 어린 아이에게까지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던 내전의 현장에도 구수환 PD가 있었다. 동티모르, 체첸,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구수환 PD가 다닌 곳이 그러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에서 그는 인간의 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호소할 길 없는 억울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구수환 PD를 찾았다. 그들이 풀어 놓는 건 눈물 보따리였고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외로움이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책임프로듀서 구수환 PD는 그렇게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맸다.

그런 그가 이태석 신부를 만났다. 의심하고 따져묻고 파헤치던 구수환 PD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남긴 톤즈에서 눈물을 흘렸다. 차디 찬 이성으로 무장한 PD의 가슴을 녹여버린 신부 이태석, 20여 년 방송 생활에서 가슴이 멍멍해지는 것도, 톤즈 어린 아이의 눈물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것도 처음이었다.

『울지마 톤즈』가 바꾼 첫 번째 사람은 구수환 PD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그것을 믿게 되었다. 구수환 PD의 마음이 몽클해졌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도 몽클해졌다. 대한민국이 몽클해졌다. 잊혀지지 말아야 할 감동이었다.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의 저자 구수환

구수환은 1986년 KBS에 입사했다. 「추적 60분」, 「세계는 지금」, 「KBS 일요스페셜」을 제작해온 시사·고발분야 전문가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초공개 오사마 빈라덴은 왜 알자지라 TV를 선택했나', '중군기자 그들이 말한다', '현지보고-피로 물든 예루살렘', '공옥진, 누가 나의 슬픔을 놓아주랴' 등이 있다. 2011년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대상, 서재필 언론문화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사회문화부분상 가톨릭매스컴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KBS 다큐멘터리국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